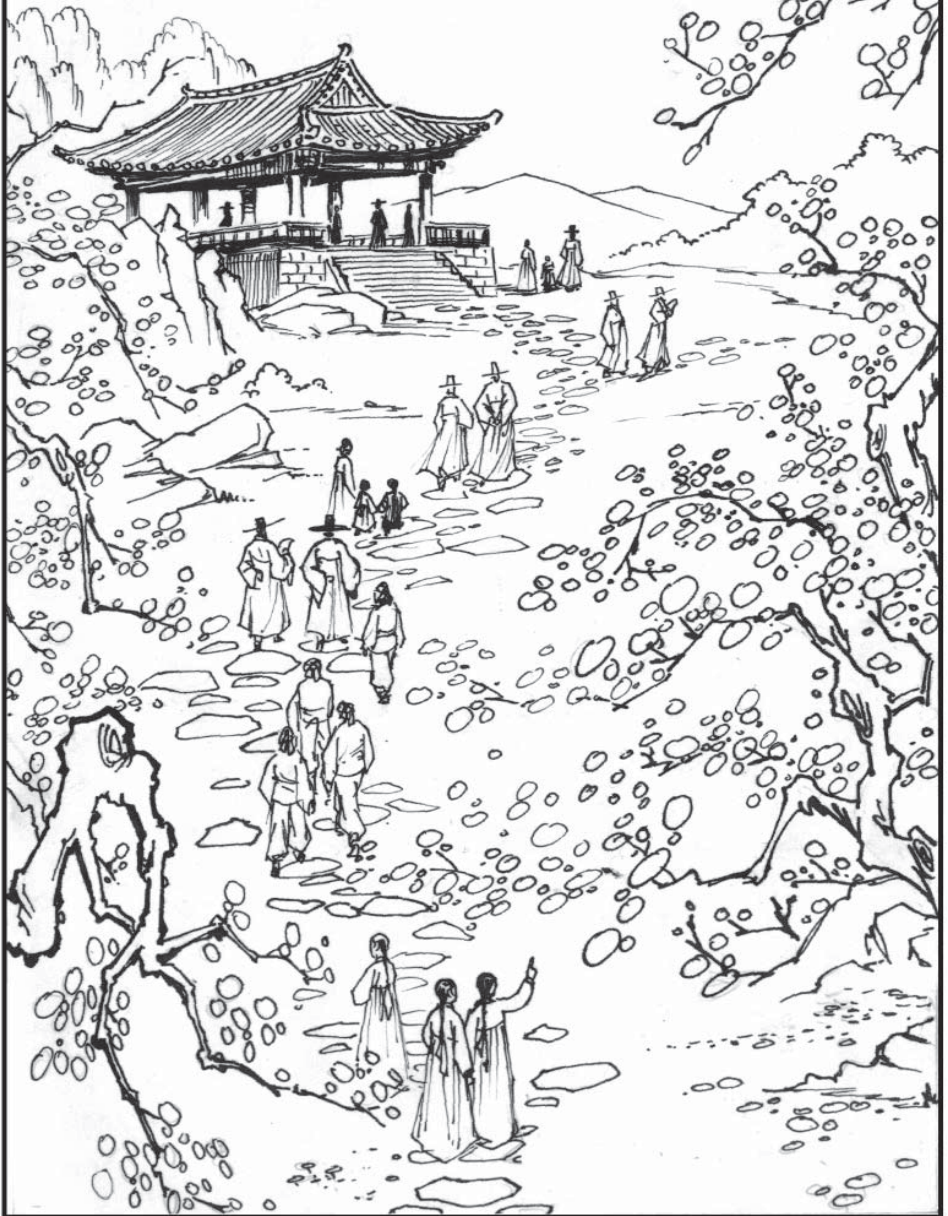
오늘은 민속명절이라 남원땅의 경치좋은 그네터로
처녀들이 모여들었다.

올라간다.~

어서 넘겨라.

여이싸

춘향이도 향단이와 함께 그네터로 가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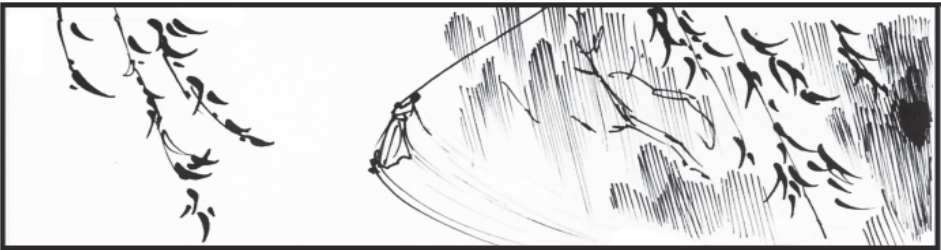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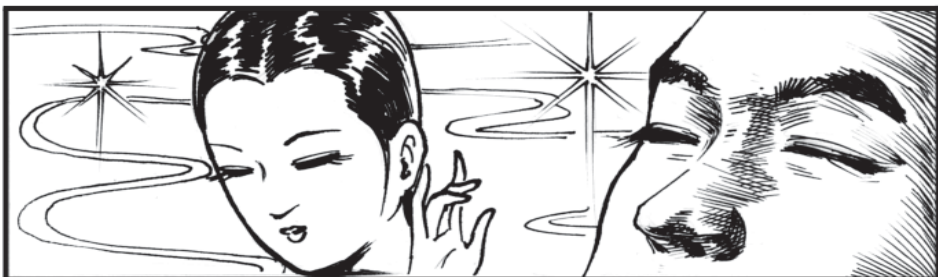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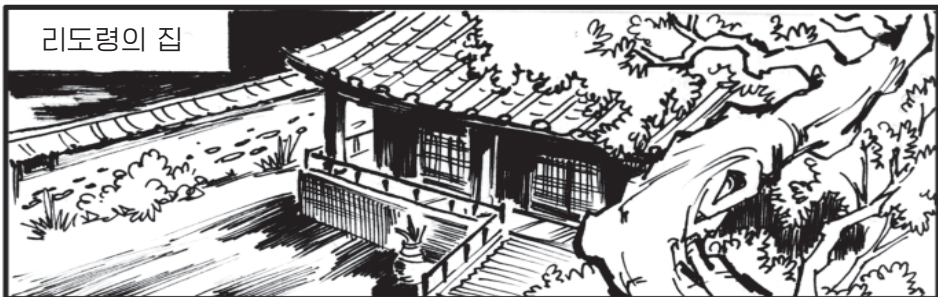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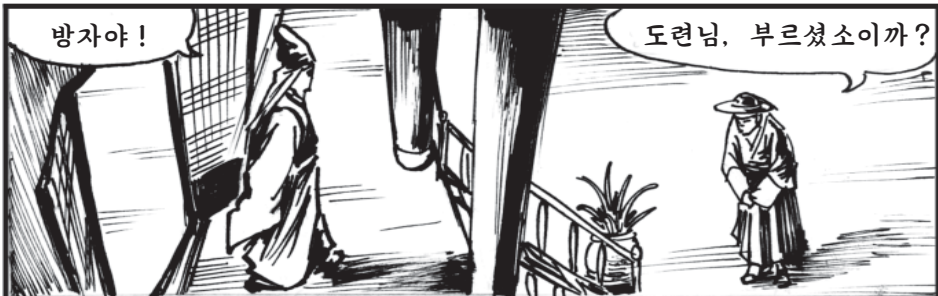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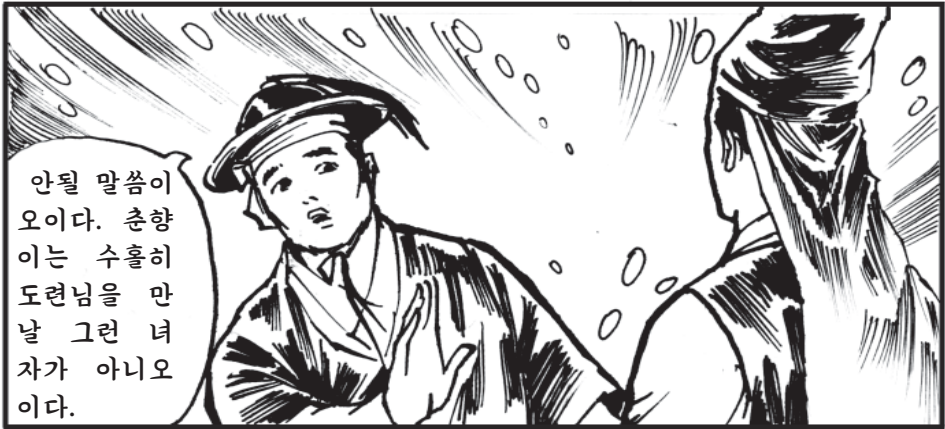
봄이라 봄이라 하여 어디서
오는 봄인가
물우에 꽃잎 흐르니 봄을
실어 흐르는가
이 봄이 흘러간다면
가는 곳이 또 어데랴

얘 향단아, 빨리 오너라.
어마나!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미인이 있단 말인가?…

방자야, 저 처녀가 누구냐?

여기 기생으로 유명하던 월매의 딸 춘향이라 하옵니다.

춘향이라…

얘 방자야, 저기 버들숲에서 오락가락 하는것이 무엇이냐?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도련님, 하늘 땅이 맑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으리까? 저건 이자 오작교에서 본 춘향이오이다.

리도령의 집

방자야!
도련님, 부르셨소이까?

오늘 밤 춘향의 집
으로 가보자꾸나.

안될 말씀이
오이다. 춘향
이는 수홀히
도련님을 만
날 그런 녀
자가 아니오
이다.

그런 춘향일수록 더욱
좋으니 꼭 만나야겠다.
사또님이 아시면
큰일 나오이다.
어서 앞서기나 해라!

춘향의 집

방자야, 대문이 걸렸으니 어쩌면 좋으냐?
담을 넘어 들어갑시다요.

어찌 그렇게야 하겠느냐.
도련님, 량반체면 차리다간 아무 일도 못하오이다. 소인이 담을 넘어들어가 대문을 열겠소이다.

쿵
어이쿠!

벌컥
이게 무슨 소리냐?
?

어떤 녀석이 아닌 밤중에 남의 집에 뛰여들었느냐?

귀신이 아니면 도적놈이 틀림없다.

좀 조용히 말하시우다.
아니, 너 방자로구나.

도련님, 어서 들어 오시오이다.

저건 또 웬 녀석이냐?
아이고, 늙은이 말이면 단가 하시오. 사또자제 도련님이 오셨소.

뭐, 도련님이?… 이런 변이라구야.

도련님, 문안하옵니까?
어머님께 인사드리오.

도련님 오신걸 모르고 늙은것이 눈이 어두워 함부로 말한것을 노여워마시오이다.
이런 때는 그런 말이 더 좋으니 일없소이다.

도련님 도량이 넓으신줄 알았다면 욕을 좀 더 많이 할걸 … 호호호.

하하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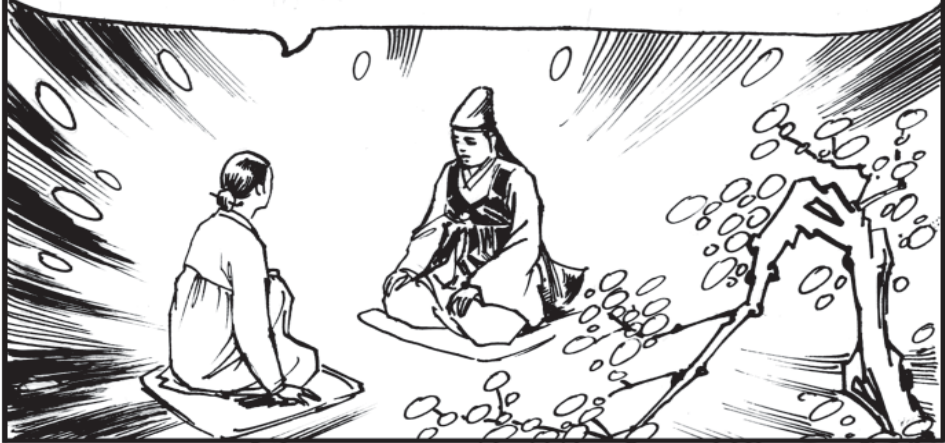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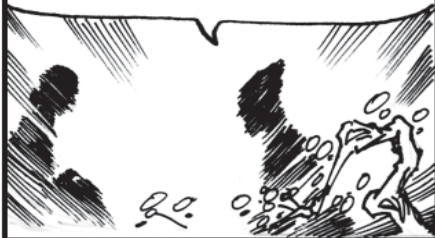
춘향아, 우리 집에 오신 도련님에게 어서 나와 인사드려라.
어마나!

얘야, 어서 나오너라.

스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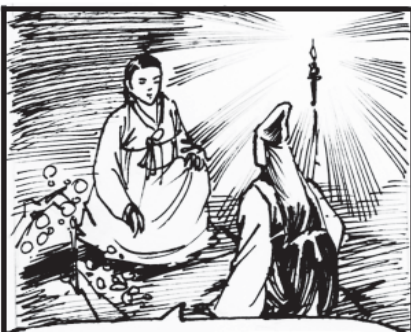
도련님, 안녕하셨소이까?

귀중하신 도련님이 이처럼 천한 우리 집에 오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우연히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꽃 보고 그리는 나비의 마음…

참을길 없어 오늘 밤 늙은이에게 할 말이 있어 온것이니 들어주겠소?

도련님 말씀이라면 듣구말구가 있소이까? 어서 말씀하시오이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차별이 있어 혼사를 해도 신분에 맞게 하는것이온데…

도련님이 지금은 봄나비 꽃본듯이 춘향을 탐내여 그런 말씀 하시지만 나중에 부모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춘향을 버리시면…

도련님께도 화가 되고 춘향의 신세도 망치오니 그런 생각을 버리시오이다.

그런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터이니 어서 허락만 해주시오.

도련님, 사람의 혼사란 일생에 한번 있는 큰 일이온데 어찌 하루이틀에 대답할수 있으리까?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노시고 그만 돌아가시오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백년을 함께 살자고 하는데 어찌 사람의 귀천을 따져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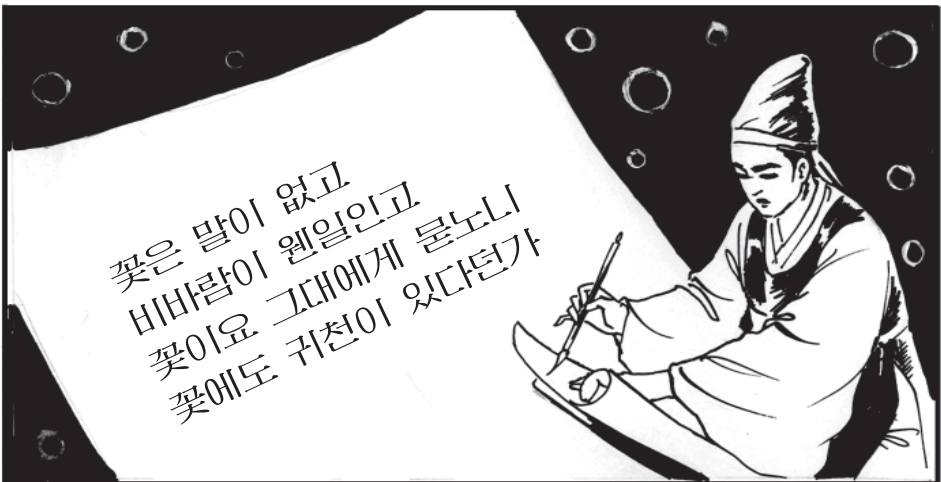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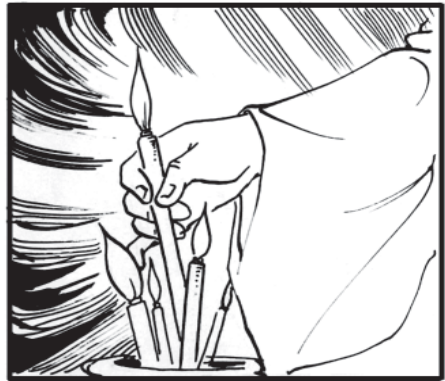
다음날 리도령의 책방

꽃은 말이 없고
비바람이 웬일인고
꽃이요 그대에게 묻노니
꽃에도 귀천이 있다던가

얘, 방자야.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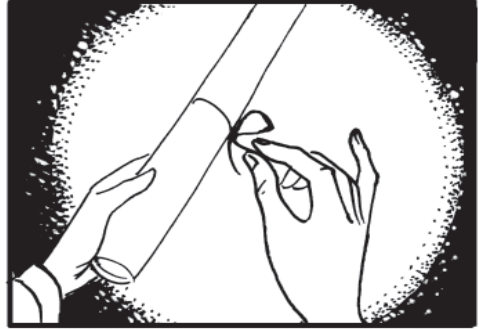
한편

둥기당 둥다앙

아씨, 방자가 또 찾아와 못살게구
니 정말 죽겠소이다.

어험!

향단아, 난 네
가 고와 말이라
도 한마디 더 하
자고 그러는데
뭘 그러느냐.
흥.

춘향아, 너의 집 늙은이
고집은 그렇다치고
네 속마음이나
알자고 도련님이 이 글
을 보내셨다.
방자야, 점잖으신 도련님이
어찌…

꽃은 말이 없고
비바람이 웬일인고
꽃이여 그대에게 묻노니
꽃에도 귀천이 있다던가

한 편
리도령의 초조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자는 삼경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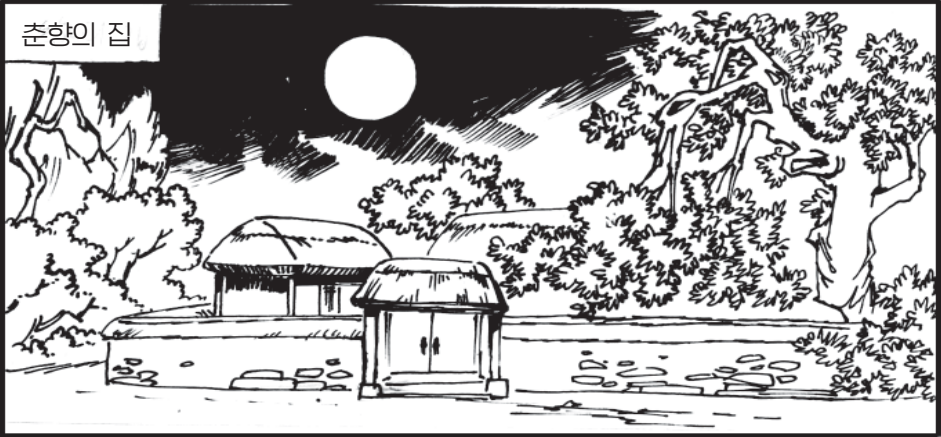
춘향이 무슨 글을 썼는지 어서 읽어보소이다.
방자야, 정말 고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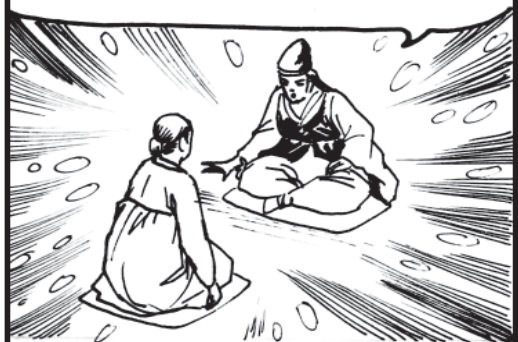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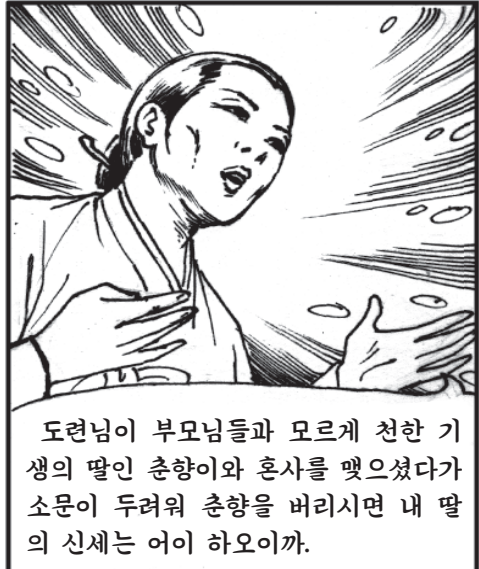
꽃은 말이 없되 비바람을 이겨내고 꽃에도 귀천이 없되 향기를 귀중히 여기나니 그 향기, 귀중한 절개를 어느 나비 알리요

옳다, 꽃은 비바람을 이겨 내고 절개높은 향기를 귀중히 여긴다 하였다.
내 어찌 그 향기 귀중함을 모르랴!

춘향의 뜻을 알게 된 리몽룡은 기어이 월매의 허락을 받으리라 결심하고 방자와 집을 나섰다.

춘향의 집

도련님께서 이처럼 또 오실줄 몰랐소이다.
오늘은 늙은 이 입에서 허락한다는 말을 기어이 듣자고 왔소이다.

열백번 헤아려도 간절하고 굳은 내 마음은 한결같으니 대장부 한 번먹은 마음 변치 않고…

춘향이만을 안해로 믿고 살터이니 허락하여주소이다.

간절하신 그 심정은 알만하옵니다만…
춘향의 아버지도 도련님 못지 않게 맹세를 하였지만 그 맹세가 뜬 구름이 되고 종당에는 우리 모녀 이 신세 되였으니… 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소이다.
우리 도련님 마음은 내가 알고 보증을 설터이니 허락만 하시라구요.
이 녀석아, 량반을 믿었다가 우리 집 신세가 이렇게 돼서 하는 말이다.
원, 량반이라고 다 갈겠소.
도련님이 부모님들과 모르게 천한 기생의 딸인 춘향이와 혼사를 맺으셨다가 소문이 두려워 춘향을 버리시면 내 딸의 신세는 어이 하오이까.

그런것은 아예 념려마소. 춘향이와 백년가약만 맺는다면 저 높은 산이 내려앉아 바다가 된다 해도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얘, 춘향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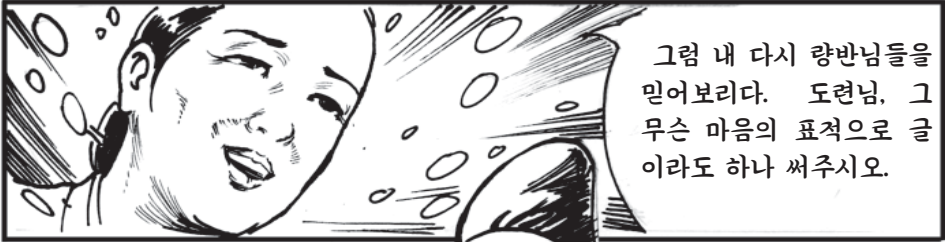
어머님, 부르셨소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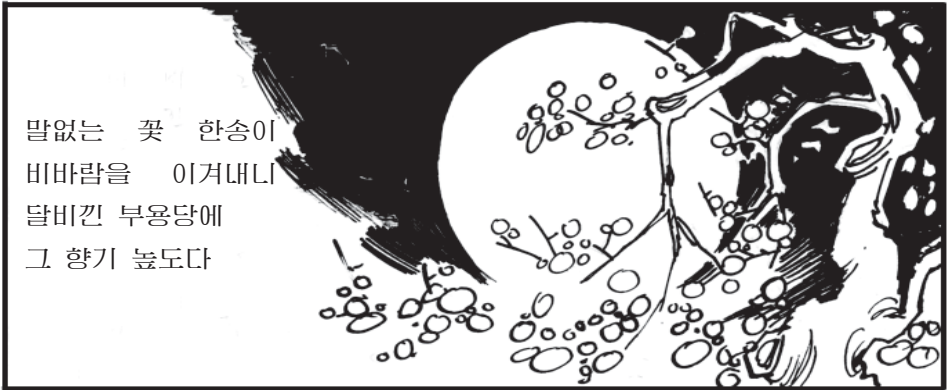
아주머니도 눈치가 없소. 춘향이 마음이 도련님한테 가 있은지 언제인데… 허참!

이 녀석아, 인륜대사가
그리 쉬우냐?

우리 도련님은 그런 신의없는 량반과는 다르니 그저 이 방자를 믿으시오.

오냐, 방자 너만 믿자.

호호호.
하하하.

그럼 내 다시 량반님들을 믿어보리다. 도련님, 그 무슨 마음의 표적으로 글이라도 하나 써주시오.
금강산 높은 봉이
평지가 된다 해도
동해물 깊은 바다
뻥발이 된다 해도
대장부 한번 맹세
천만년 변치 않으리

춘향아, 이 글이 우리 집의 보배이니 네가 잘 간수해라.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도련님을 섬기며 녀자의 행실을 잃지 말아라.

말없는 꽃 한송이
비바람을 이겨내니
달비낀 부용당에
그 향기 높도다

세상에 다시 없으리
그보다 맑은 향기

세월에 피는 꽃은
향기도 한때오니
그 어이 한때 사랑
그 향기에 취하리까
님향한 일편단심의
그 향기를 아끼소서

향단아, 오늘같은 이 경사에 나에게 술 좀 다오?
아니, 네가 뭘 했다고…

나도 네 마음이 어질고 착하다는것을 다 안다. 허지만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속이 타누나.

흥, 어서 받아.

꿀꺽
꿀꺽
어마, 천천히 마셔.

카~!

네가 만든 떡이여서인지 참 별맛이구나.

사람이란 밥이나 술만 먹고 사는게 아니다.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것인데 향단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하구나.
어마나, 네가 취했나부다.

한편
춘향, 나는 이 세상에 나서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구나. 춘향, 말 좀 하오.
도련님이 모르시는것을 제가 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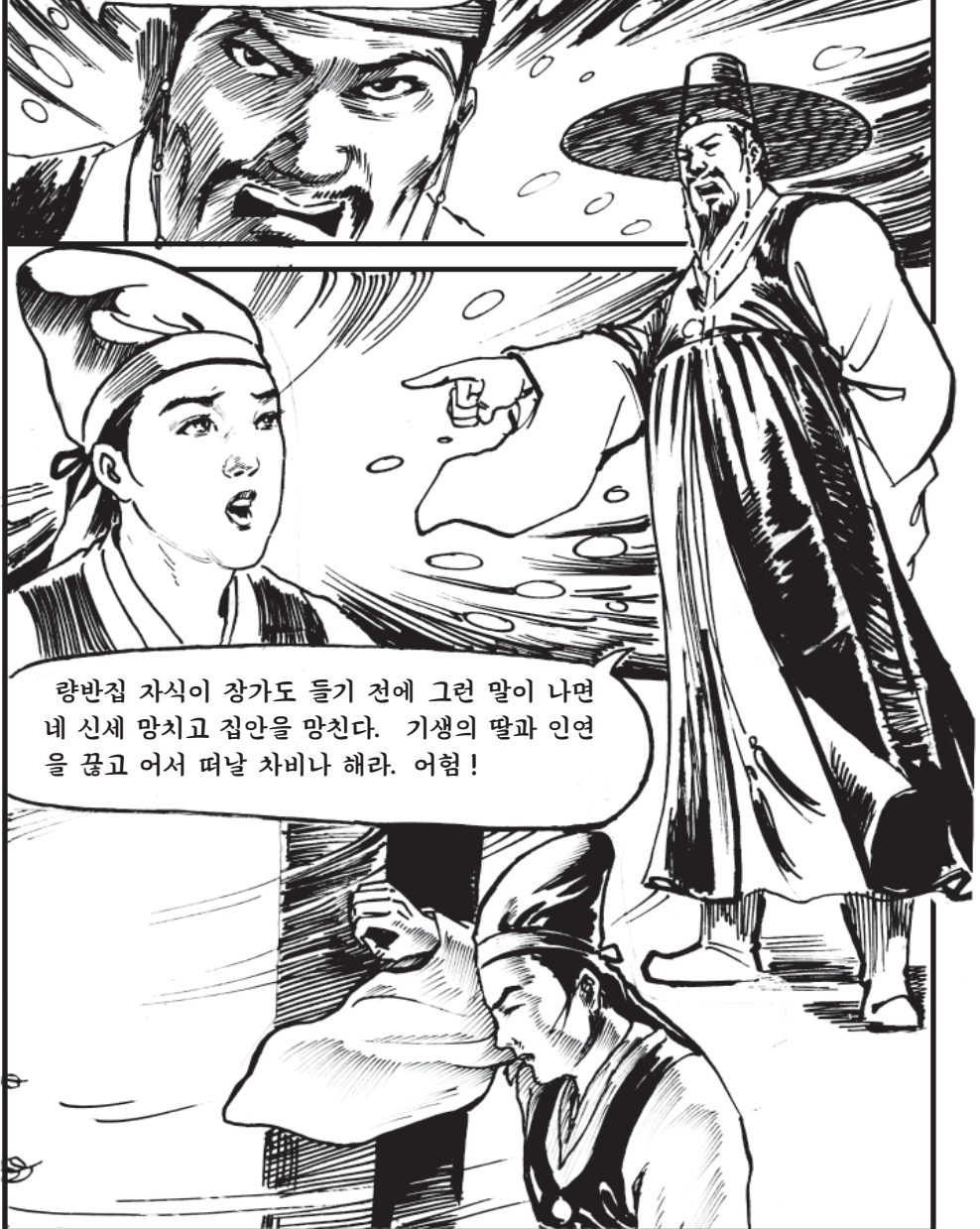
어마나.
춘향, 일생토록 내 이 손을 놓지 않을 테요.

꽃잎우에 맺혀있는
이슬같이 맑은 사랑
밝고밝은 달빛아래
수집은듯 웃는 사랑

달아래 한생연분
너와 만난 사랑
천금같이 귀한 사랑
우리들이 만난 사랑

네가 량반집자식으로 천한 기생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게 사실이냐?

춘향이 비록 기생의 딸이오
나 우리들의 사랑에 무슨 귀
천이 있겠소이까.

저는 춘향
이와 백년
가약을 맺고
천만년 변치
않을 맹세를
하였소이다.

네 무슨 당치 않는 소릴 하느냐?
량반집 자식이 장가도 들기 전에 그런 말이 나면 네 신세 망치고 집안을 망친다. 기생의 딸과 인연을 끊고 어서 떠날 차비나 해라. 어험!

봉건의 울타리에 가로막혀 리
도령은 춘향이와 생리별을 하
게 되였다.

어쩌면 그렇게 곱게 짜시나이까. 이제
도련님이 이 천으로 새옷을 입으시면…
호호호.
향단아, 아직은 너만 알고있거라.

어마나, 도련님이?…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사또께서 큰 벼슬에 오르시여 한성으로 올라가게 되였다. 그런데 너를 두고 가자니…

사또께 네 말을 여쭈었더니 량반집 아들이 기생의 딸과 혼인을 맺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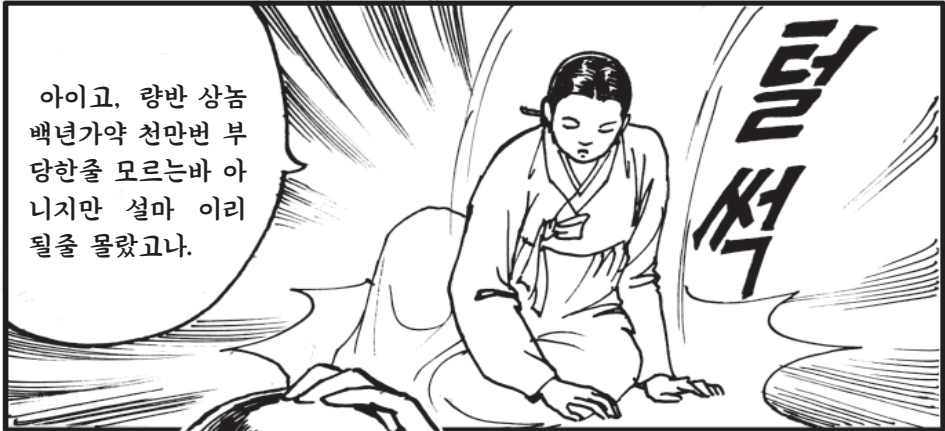
그러니 기생의 딸이라 하여 리별하잔 말씀이오이까?

도련님, 어찌 그리도 모지시나이까. 천하에 다정한게 부부의 정인데 이 정을 끊자 하시다니. 아, 서러워라.

춘향아, 무슨 일로 우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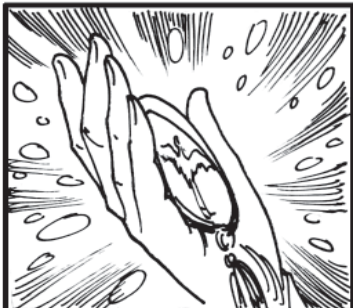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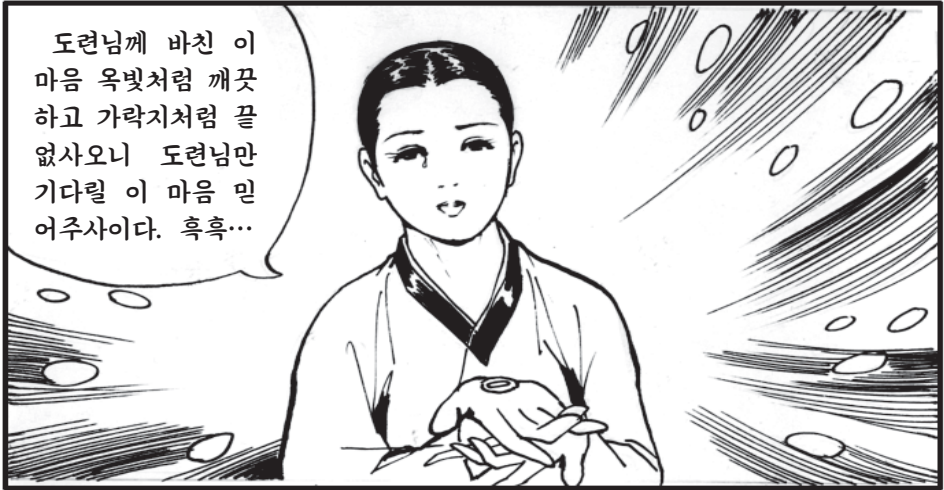
도련님이 한성으로 가시는데 나를 못데리고 간다니 어쩌면 좋소이까.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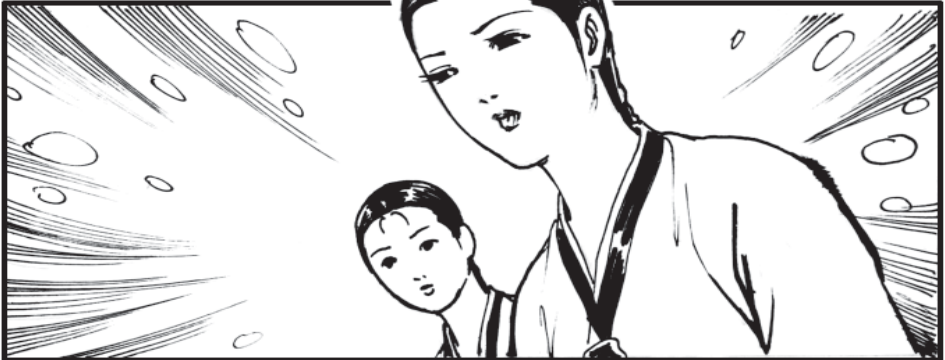
도련님, 그게 참말이요?
량반례절이 말이 많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 기가 막히오.
도련님, 말 좀 해보시오. 우리 춘향이가 도련님을 모실적에 행실이 그르던가, 례절이 그르던가. 무엇이 모자라서 이런 괄시를 하는거요.
장모, 내 어찌 모르겠소. 그것을 잘 알기에 내 마음 더 괴롭고 더 아프오.

털썩

아이고, 량반 상놈 백년가약 천만번 부당한줄 모르는바 아니지만 설마 이리 될줄 몰랐고나.

이 어미 천한 몸이 되여 내 딸의 신세까지 망치누나. 아이고―

지난 봄엔 백년가약 사랑이 넘치더니 가을이 된 오늘에는 생리별의 피눈물이 넘칠줄 그 누가 알았던가. 아, 야속한 세상이로다.

도련님, 무슨 리별을 그렇게 끈질기게 하시오? 사또께서 어서 떠나자고 기다리고계시오.

춘향아, 꽃다운 네 모습 상하지 말고 내 올 때를 꼭 기다리오.
도련님, 먼길에 부디 몸조심 하시오.

향단아, 아씨 모시고 오리정으로 나오너라.

바람따라 구름가건만 춘향이는 님을 따라 못가
는가, 아 야속한 이 세상!
빈부귀천의 이 세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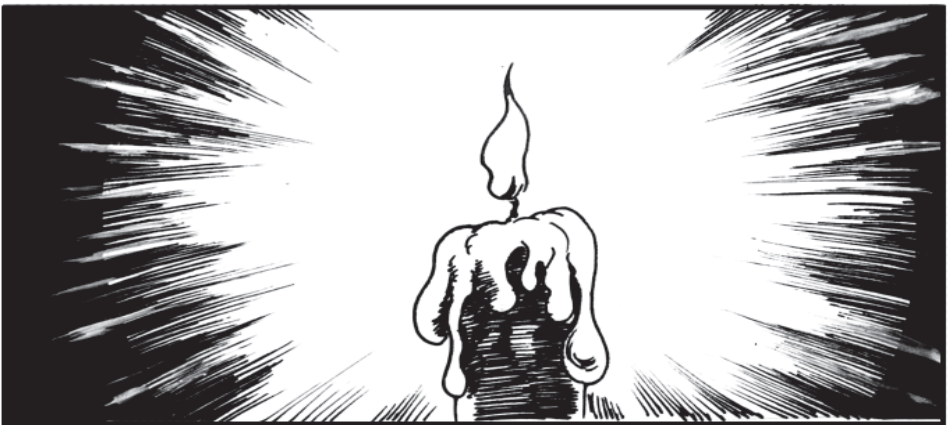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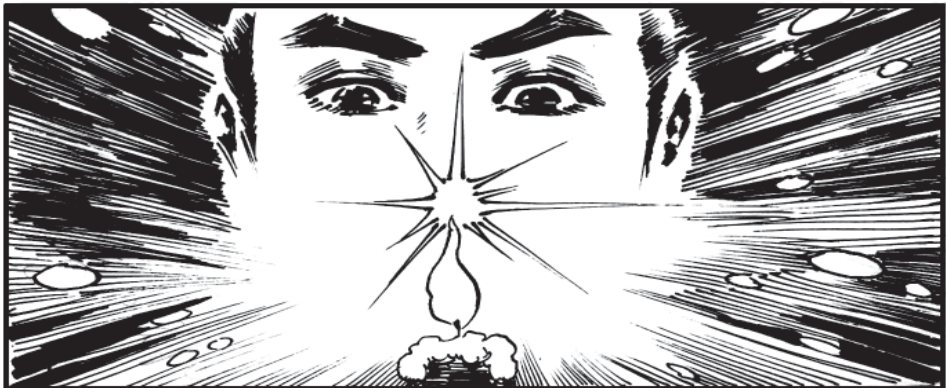
리별중에도 생리별이란 참으로 기막힌것이였다. 춘향은 오리정에서 도련님과 생리별하고 앓기 시작하였다.

도련님, 흑흑…

아씨, 도련님 가시면서 하신 말씀 잊으셨나요? 너무 울면 병이 난다고…
도련님생각 참을수 없어 그런단다. 흑흑.

한 편

귀한것이무엇인고
천한것이 무엇인고

빈부귀천 서로 달라
우리 리별 생겼는고

한 편

새로운 사또가 내려오는데 이 량반이 바로 변학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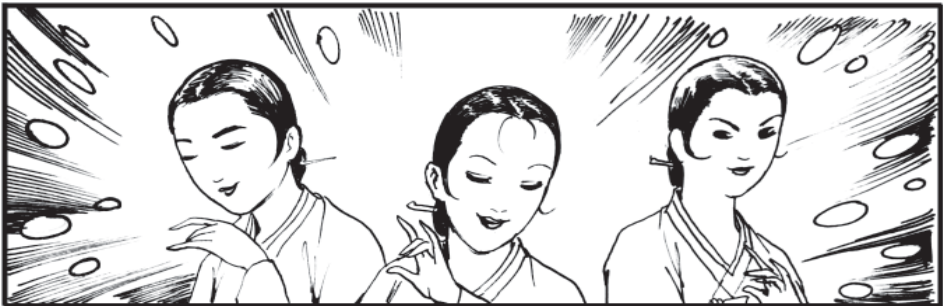
남원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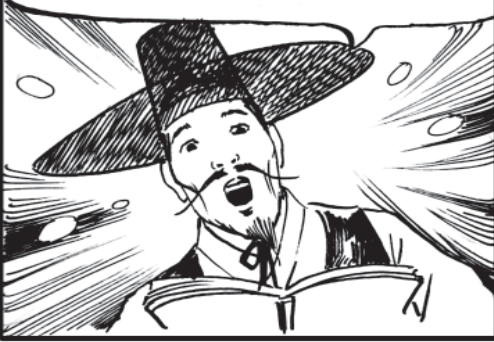
군포는 빠짐없이 받아들였느냐?

남원 사십팔면에 지난해 흉년이 든데가 많사와 올해농사를 짓자 해도 먹을 량곡이 없는 형편이라 군포를 내지 못하는 농가가 많소이다.

갑돌이 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는거요. 아이고, 원통해라.

한 편
기생점고 어찌 되였느냐?
예잇! 대령하였소이다.
변학도는 원래 술과 계집을 좋아하였으나 사또의 체면을 차려 군포를 비롯한 일부 일들을 보고 관청 기생점고에 달라붙었다.

달아래 미인이여 네가
정녕 선녀이냐.
월선이 -
맑고맑은 둥근달이 벽해에
들었느냐. 백옥이 -
남원땅에 춘향이가
그렇게 절색이라는데…

어험! 그렇게 부르다간 몇달이 걸릴지 모르니 향자달린 이름만 불러라.

향월이, 향옥이.

옥향이, 추향이.

엉?!춘향이냐, 추향이냐?
추향이오이다.

너의 고을에 인물이 좋다더니 그게 고작이냐? 남원에 춘향이 있다 하더니 점고에 어찌 그 이름이 없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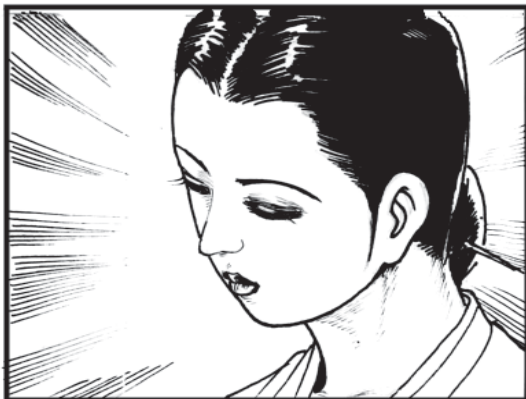
춘향이 어미 월매는 기생이였으나 춘향은 기생이 아니오이다. 지금은 구관사또 자제 리몽령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고 수절을 하고있소이다.

무식한 놈들, 어떠한 량반가문이라고 천한 기생의 딸과 혼인을 맺는단 말이냐.

잔말말고 춘향을 불러들이지 못하면 네놈들을 모조리 한매에 칠것이니 빨리 대령시켜라.

사또한테 춘향이가 걸렸구나.
춘향이가 가련하게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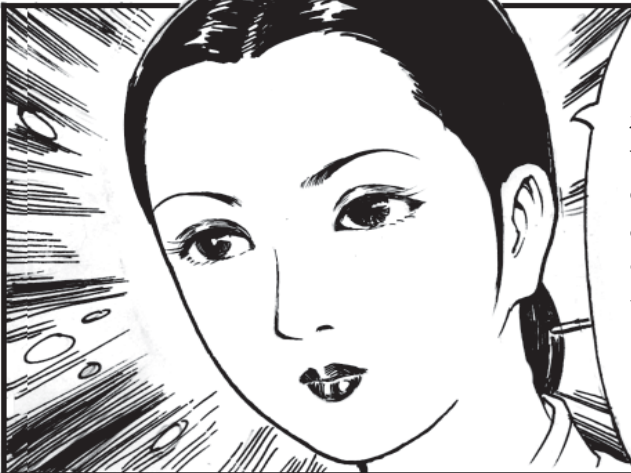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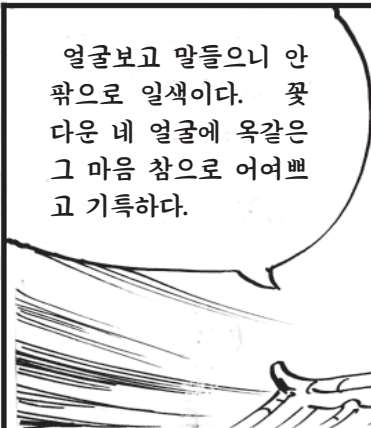
오늘 오실가, 래일 오실가 도련님만 손꼽아 기다리는 춘향이에게 신관사또의 분부가 떨어졌으니 이제 이 일을 어이 피하랴.

남원관청
춘향이 대령하였소이다.

춘향아, 너의 소문이 하도 자자하여
내 벼슬을 마다하고 남원관청으로 …

내려왔으니 오늘부터 나의
수청을 드는게 어떠냐?

소녀는 비록 기생의 딸이오나 관청의 기생이 아니오며 또 구관사또자제
리몽령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은 몸인지라 그 말씀 당치 않소이다.

리도령은 한성의 문벌높은 량반의 자손으로서 명문귀족의 사위가 되여…

갖은 향락을 다 누릴것이니 한때 잡사랑으로 희롱하던 너를 조금이나 생각할줄 아느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며 렬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도련님과 백년가약 맺은 이 마음 절대로 변할수 없나이다.

얼굴보고 말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다. 꽃다운 네 얼굴에 옥같은 그 마음 참으로 어여쁘고 기특하다.

춘향아, 네 아무리 수절한들 너 하나 늙어지면 누가 너를 곱다하랴. 그러니 오늘부터 단장을 고이하고 수청들게 하여라.
저의 마음 사또님과 다르오이다.
도련님과 맺은 언약 버릴수 없사오니 그리 아시오이다.

도련님과 해와 달을 두고 맹세한 그 마음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지 못하며 …

그 어떤 말로써도 이 마음을 옮기지 못할것이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봐라, 이년을 형틀
에 올려 매우 쳐라.
천한 계집이 충절이니
정조이니 관청의 분부
를 마다한 죄를 알도
록 해라.

그러면 유부녀 강탈하려는 죄
는 어찌하라 하였나이까?

이… 이년을 잡아내려라.-

춘향이 듣거라. 네 천한 계집으로 사또의 엄하신 분부를 마다하고 발악하고 거역하니 너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다짐장을 써라.

무엇이? 《일심》 이라고?… 요 발칙한년, 저년의 다리를 부셔라!

이얏!

아 -
딱

한대요 -
일편단심 굳은 마음 도련님을 지켜 죽을것이니
한개 형장 친다고서 이 마음 변하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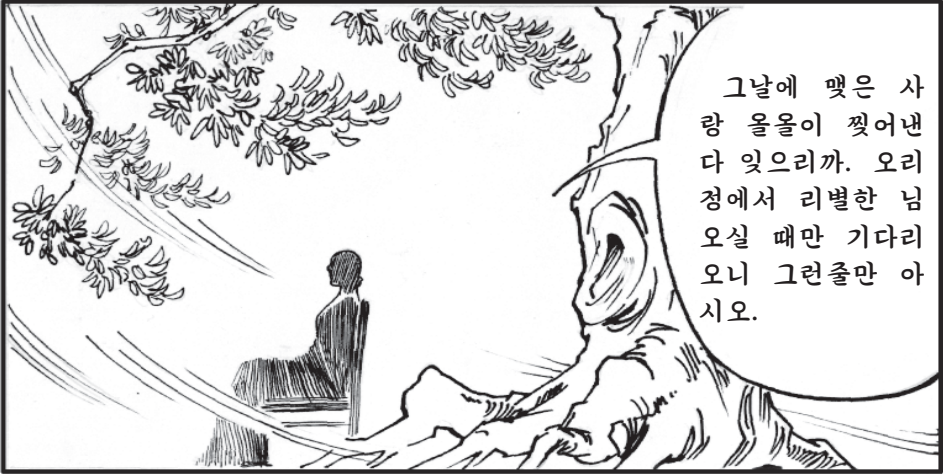
딱
두대요 -
이팔청춘 젊은 이 몸 두 랑군을
섬기리까. 이 매 맞고 영 죽은들
두 마음을 가지리까.

석대요 -

세가지 따르는 법 세살부터 배운 이 몸 삼
천리 귀양을 간들 그 넋이 변하리까.

이야아
넉대요-
딱

사또님은 사십팔면 남원공사 살피지 아니하고 유부녀 희롱하는데 힘을 쓰니 백성들의 사무친 원한 왜 모르시오.

다섯대요 -
딱
이야

그날에 맺은 사랑 올올이 찢어낸다 잊으리까. 오리정에서 리별한 님 오실 때만 기다리오니 그런줄만 아시오.

세상에 이처럼 어여쁘고 절개있는 녀인 또 있었던가. 무지한 형장으로 매우 치니 춘향의 신음소리 사람들의 가슴 허빈다.

열대요 -
딱

십만번 죽인대도 가망없으니 형장아래 죽는 이 몸 원통하고 절통하오.

저, 저년 지독한 년이로다.

녀자의 독한 마음 오뉴월에도 서리친다 한들 이 몸을 죽이여도 도련님께 바친 마음 죽이지 못하거니 사또께서는 그리 아시오.

옥같은 몸에 솟는것은
붉은피요 흐르는것은
억울한 눈물이라 피와 눈물이
한데 흘러 관청마당을 다 적시여도
춘향의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아주 큰 칼을 씌워 저년을 옥에 가두어라.

내 딸 춘향이가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히다니…

아이고, 춘향아, 이게 웬 일이냐?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옥에 갇혔느냐?

어머니, 여기는 왜 오셨소?
네가 쓴 칼을 내가 쓰자. 너 죽으면 나도 죽자.

어머니, 서러워 말고 집으로 돌아가오. 죄없는 춘향이가 설마한들 죽으리까.

향단아, 나 없다고 서러워 말고 어머니를 잘 모시면 내 안죽고 살아나서 네 은혜를 갚으리다.

아씨, 그런 념려는 마시고 제발
천금같은 몸을 돌보시오이다. 흑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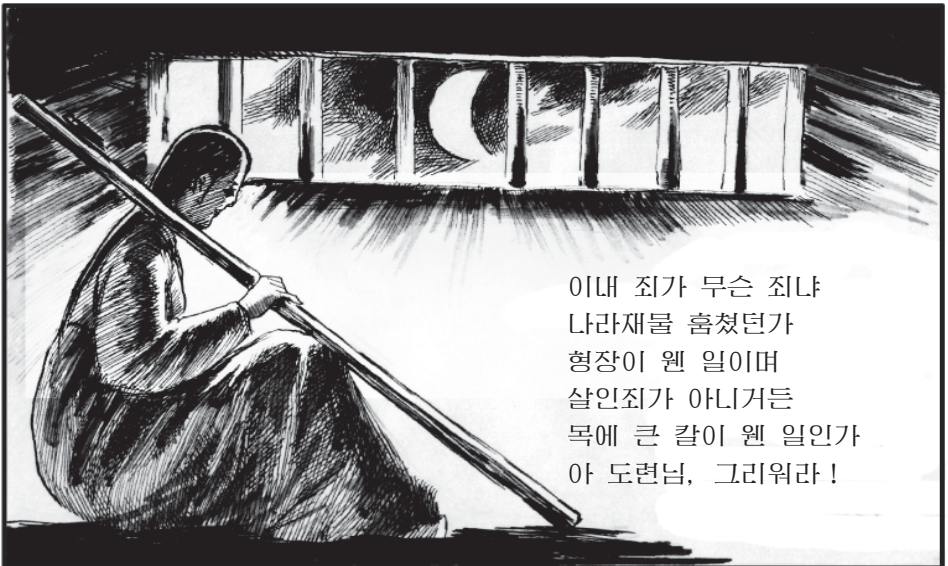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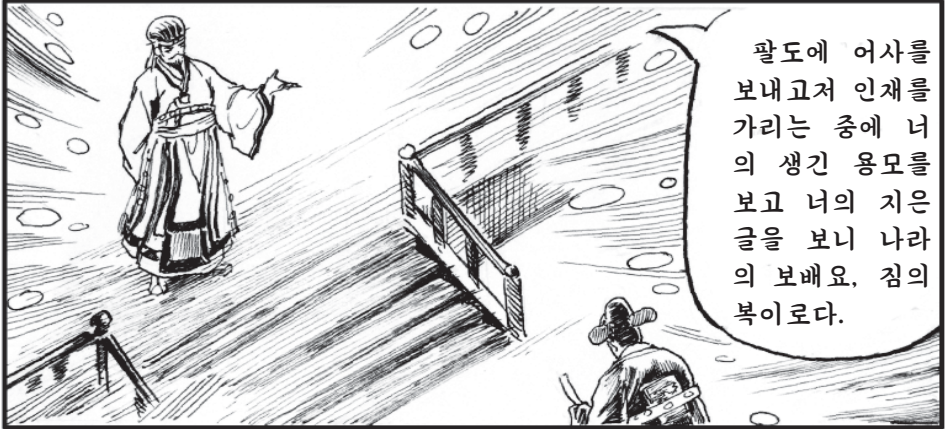
어머니. 이젠 돌아가시오이다.

아이고. 춘향아!

이내 죄가 무슨 죄냐
나라재물 훔쳤던가
형장이 웬 일이며
살인죄가 아니거든
목에 큰 칼이 웬 일인가
아 도련님, 그리워라!

끼르륵

끼르륵
님가신 북녘변강에 편지를 전하는 기러기야, 네 무슨 원한 맺혀 그리도 울며 가느냐. 네가는 북녘에 있는 우리 님에게 내 말을 전해주렴.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러도 춘향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간직한 리몽룡은 밤낮으로 글공부에 전심하여 장원급제한 후 나라의 어사로 되였다.

팔도에 어사를 보내고저 인재를 가리는 중에 너의 생긴 용모를 보고 너의 지은 글을 보니 나라의 보배요, 짐의 복이로다.

나이는 비록 젊었으나 중책을 맡겨 전라어사로 임명하니 탐관오리 불충불효를 알아 짐에게 올리고 선처하여라.

다음날 리몽룡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전라 남원땅에 들어섰다.

모두 듣거라. 옛말에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보다 못하다 하였거늘 모든 고을들을 날날이 돌아보고 이달 십오일 《광한루》에 도착하여라.
알겠소이다.
그만 울어라.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하구나.
군포인지 뭔지 온 마을을 다 굶겨죽이겠수다.
?
이곳 백성들의 생활이 왜 이다지도 비참한가.…

세상에 춘향이 같은 렬녀가 어디 있겠소. 사또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그를 죽인다 하오. 원 쯔쯔.

참으로 억울하고 가련하오.

백성들의 피땀을 긁어먹고 주색을 일삼는 남원의 대들보를 싹 뽑아버려야 하오.

?

쉿, 저기 량반이 있네.

남원의 썩은
대들보라.…
아니?! 저게 방자가 아닌가?
방자야!
?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이게 뉘
시오. 도련님!
하하하.

도련님, 방자 문안드리오.
얘, 방자야, 어서 일어나 거라.

그새 잘 있었느냐?
잘 있는게 다 뭐요. 도련님 떠나가신 후 소인은 관가에서 쫓겨나고 춘향이는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여 옥에 갇혀 죽게 되였소. 이게 춘향아씨 편지요. 어서 보오.

해당화에 두견새 울고 오동잎에 밤새 울제 창문 아래 홀로 앉아 님 그려 울기를 그 몇번 눈물 적시며 도련님 기다리고 기다리며 지내는데 신관사또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참혹한 형을 받아 옥중에 갇혔나이다.
… …
성춘향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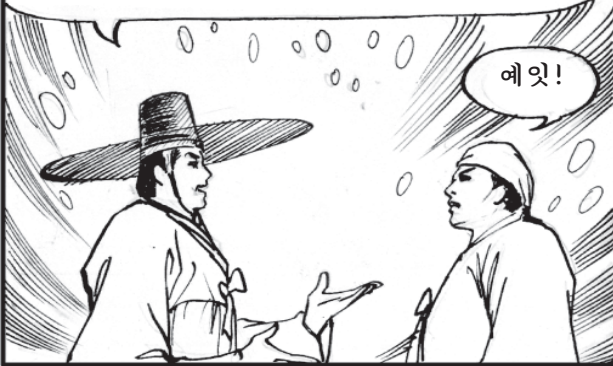
그런데 도련님 옷
주제가 이게 뭐요?

어이쿠. 도련님이 과거
급제 하는줄 알았더니 …
털썩

하늘도 무심하구나. 우리
춘향아씬 죽었구나. 죽었어.

당장에 어사출도를…
?!

아니, 어사 출도
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아니. 내 그저 해본 소리다.

이놈아!
헤헤헤. 도련님, 난 못속이우다.
소인을 어사님의 역졸로 받아주시면 도련님 출도하실 때 …
륙모방망이로 변학도의 대갈통을 박살내겠소이다.
이놈, 입다물지 못할가? 만일 이 비밀이 새나가면 네 목이 열이라도 남을게 없으리다.
사또 생일날이 언제냐?
이달 보름날이오이다.
도련님, 소인 념려마시오. 신관사또 생일날에 춘향아씨를 죽인다 하오이다.

리몽룡은 편지에서 어사비밀이 새여날가봐 방자를 옥에 가두어 잘 대접하다가 이달 보름날에 내보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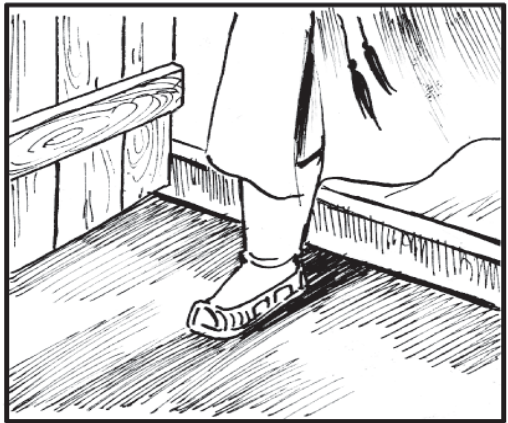
춘향이 그네뛰며 붉은치마자락을 하늘에 날리던 버드나무도 외로이 서있고 아름다운 춘향을 만나던 오작교도 쓸쓸하게 보인다.

쓸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리
몽룡은 춘향이의 집에 들렸다.

어이구.

리몽룡은 필경 내 딸을 잊었구나.
모질기도 해라.

장모, 그간 편안하셨소.
거 뉘시오?

이자 찾던 춘향이와 백년가약을 맺은 리서방이요.
리서방이라니?!

어디 보세. 얼굴보니 내 사위가 옳구만. 향단아, 어서 불을 밝혀라.

아니?! 도련님, 향단이 인사드리오이다.
오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이 무정한 사람아, 한번 떠난 뒤에 소식조차 끊다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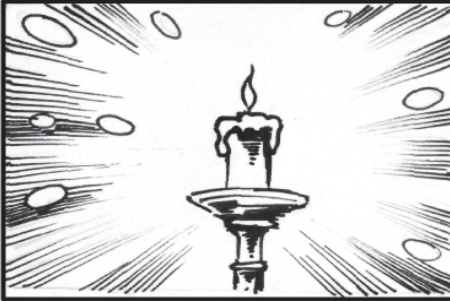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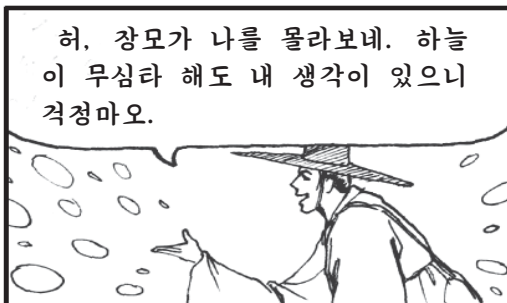
자, 편히 앉으
라구.
그런데 이게 웬 일이요?
왜 그 모양이 됐나말일세.
량반이 잘못되면
그 신세 가련함을
이루 말할수 없소.
장모, 배가 고파죽겠
소. 나 밥한그릇 주오.
뭐? 밥달라구…
원 참.
향단아, 리서방이
밥달라신다.
도련님, 우선 요기를 하시오이다.
고맙다.

이거 밥 빌어먹는데 리력이 났구나.

이제야 배가 부르군. 장모, 이젠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그꼴로 춘향을 봐선 뭘 해.

허, 장모가 나를 몰라보네. 하늘이 무심타 해도 내 생각이 있으니 걱정마오.

어휴. 량반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가?

도련님, 우리 마님 화김에 해본 말씀이니 노여워 마시고 어서 춘향아씨 보시러 가십시다.
오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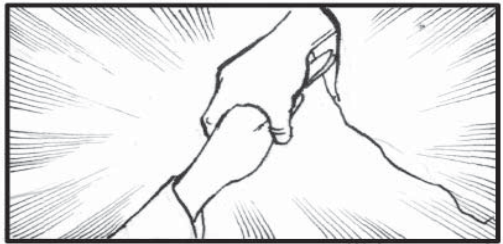
옥중

춘향아- 왔다. 왔어. 네 서방님이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중에서도 상거지가 돼서 왔다. 어이구.

도련님이 오시다니. 꿈속에서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도련님, 어데 오셨소?

춘향!

도련님!

도련님, 어데 갔다 이제 오셨소. 내 신세 기구하여 형장에서 죽게 됨을 알고 오셨소, 모르고 오셨소? 흑흑…

그래두 제 서방이라구. 어이구, 가여워라.

춘향은 도련님을 부르고 리도령은 춘향을 부르며 애절하고 통절한 울음소리 옥안을 꽉 채웠다.

도련님, 래일 사또 생일잔치끝에 나를 죽인다니 부디 멀리 가지 말고 문밖에 기다렸다 나를 죽여 내치거든 이 몸을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사이다. 흑흑…

춘향, 네 나를 다시 보려거든 마음을 굳게 먹소.
도련님, 그만 돌아가시오이다. 옥형리가 돌아올 때가 되였소이다.

춘향, 래일 날이 밝으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누가 알랴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그리 알고 마음을 굳게 먹소.

도련님, 흑흑.
죄없는 사람은 옥중에서 울고 죄많은놈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으니 세상일은 참으로 불평등하였다.

사또생일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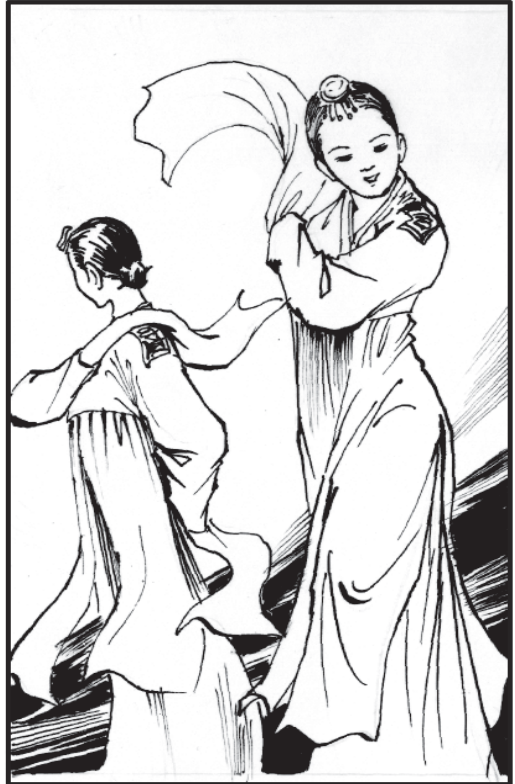
허하하
마셔라 마셔

쭉 내시오이다.

쯔읍

카, 술맛 좋다. 또 부어라.

이놈, 섰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

여봐라. 먼길 가던 나그네 좋은 잔치를 만나 술 한잔 얻어먹자고 사또께 여쭈어라.

저 량반이 비록 옷은 허줄하나 량반의 후손이 분명하니 저 말석에 앉혀 술한잔이나 대접함이 어떠하오?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

그럼 됐소. 여봐라, 저 량반 이리로 올려보내라.

운봉이 나를 알아보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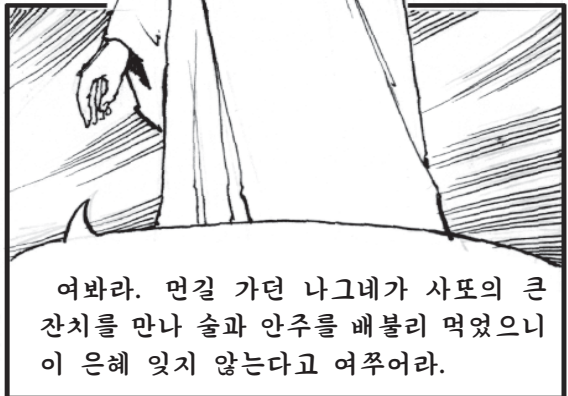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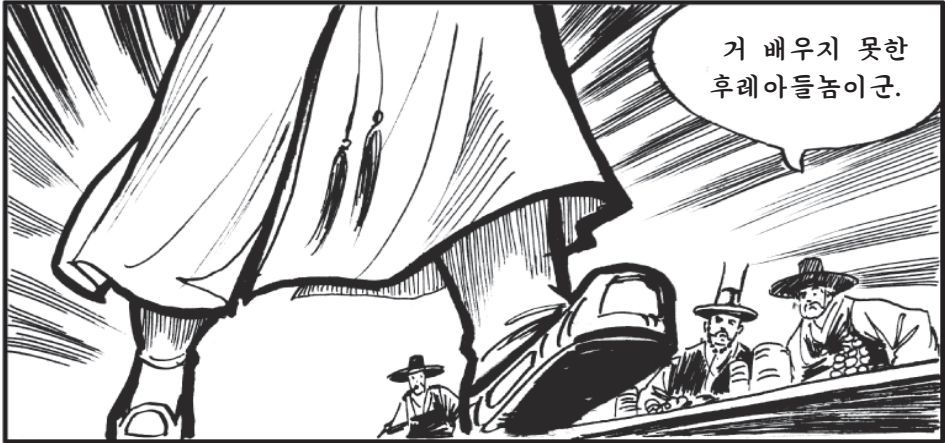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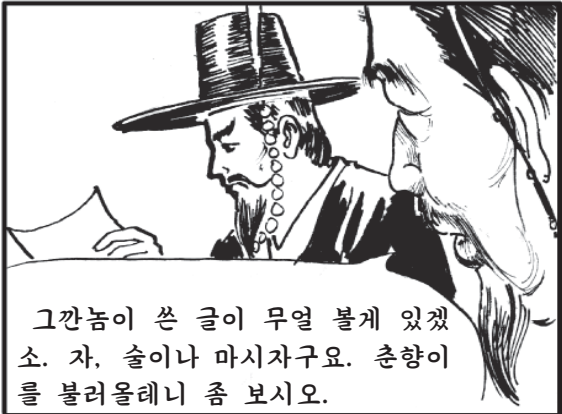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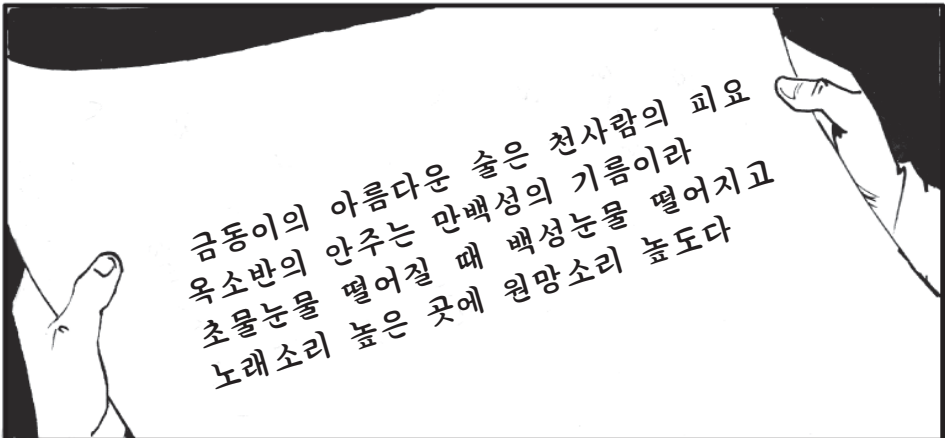
운봉은 오늘따라 망령이요. 저런 놈을 가까이 하면 도적맞히기나 일쑤인데 대접을 하다니… 허참.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고 포승은 네가 질줄 알아라.

갈이 한잔 먹읍시다.
이크. 이 량반이 생사람의 갈비를 먹으려나?

이게 먹음직하군.

우리 오래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운을 달아 시 한수를 짓는것이 어떠하오?

여봐라. 먼길 가던 나그네가 사포의 큰
잔치를 만나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었으니
이 은혜 잊지 않는다고 여쭈어라.

거 배우지 못한
후레아들놈이군.

그깐놈이 쓴 글이 무얼 볼게 있겠소. 자, 술이나 마시자구요. 춘향이를 불러올테니 좀 보시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물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아뿔사. 일
이 났구나.
?!

사또, 내 오
늘 일이 있어
먼저 좀 가보
겠소이다.
나도 오늘 백성들에게 환자쌀
을 줄 날이 돼서…

이거 오늘 왜들
이러시오?

이제 춘향이를 올려 매치는 구경
을 하시구려.
어험.

대체 뭐라구 썼소?

사또, 우리도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소.
거기선 왜 또 그러시오?

암행어사 출도요!

애, 향월아, 날 버리고 어딜 달아나느냐?

큰 변이 났구나.

어서 이걸 놓지 못 하겠어?

쨍가당

쿵

이놈, 어딜 뛸려구?

어이쿠!

아이고, 날 살려주시오.

이건 우리 춘향아씨 형틀에 올려 매를 친 값이다.
으악 !

맛이 어떠냐? 이 더러운 놈아!

이건 우리 남원사람들이 피눈물 흘린 값이다.
아이구!

남원관가

어서 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 불러라.
예잇!

너희들의 죄를 말하라.
군포를 제때에 바치지 못해 매를 죽도록 맞고 옥에 갇혔나이다.

농사를 보다 알심있게 지어 앞으론 군포를 제때에 바치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춘향이로구나.
고생을 하더니 많이 축갔군요.
아, 도련님은 어데 계실가?

아

도련님, 이 몸은…

아, 춘향!

어사님께 아뢰오. 춘향이가 수절을 하고 정조를 지키는것이 죄로 되옵니까. 살려주사이다. 우리 춘향이를 살려주사이다.

이것을 춘향에게 가져다주어라.
알 았 소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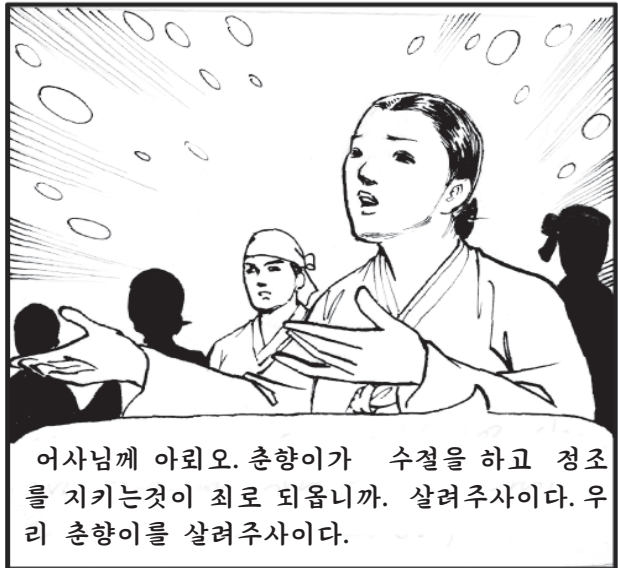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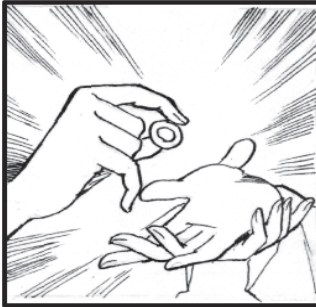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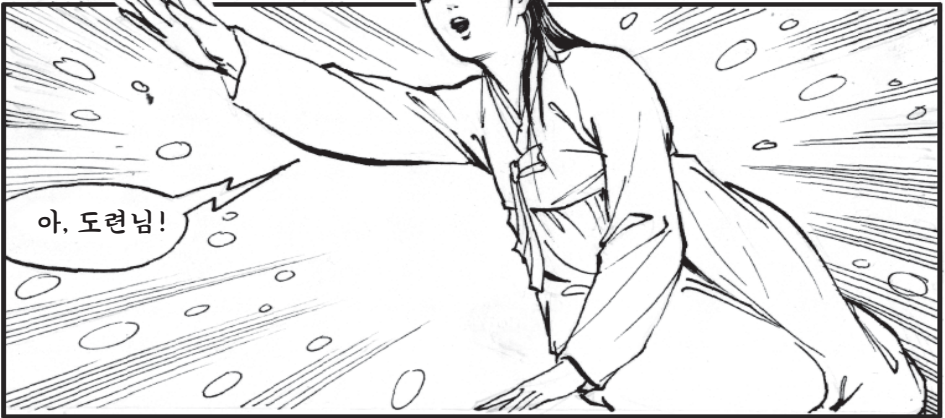
아, 도련님께 드린 이 옥가락지… 어찌된 일일가?

옥가락지만 안겨 주고 도련님은 어디 가셨을가?

춘향은 얼굴을 들고
나를 보라.

아, 도련님!

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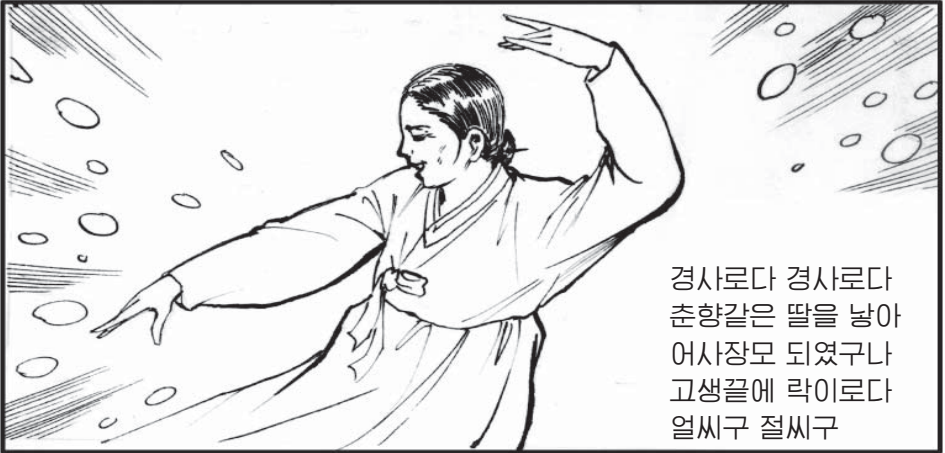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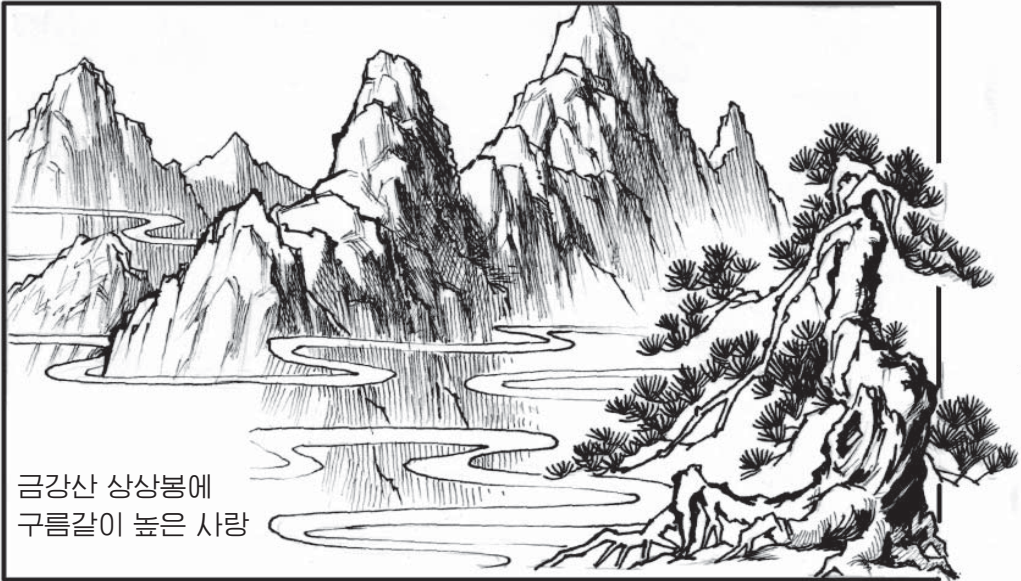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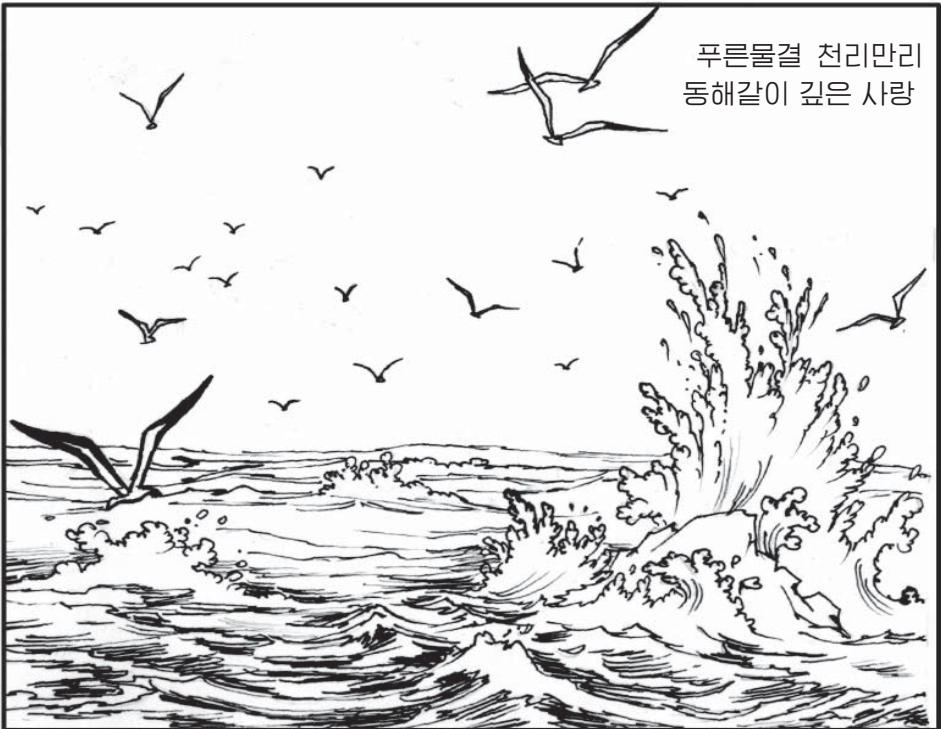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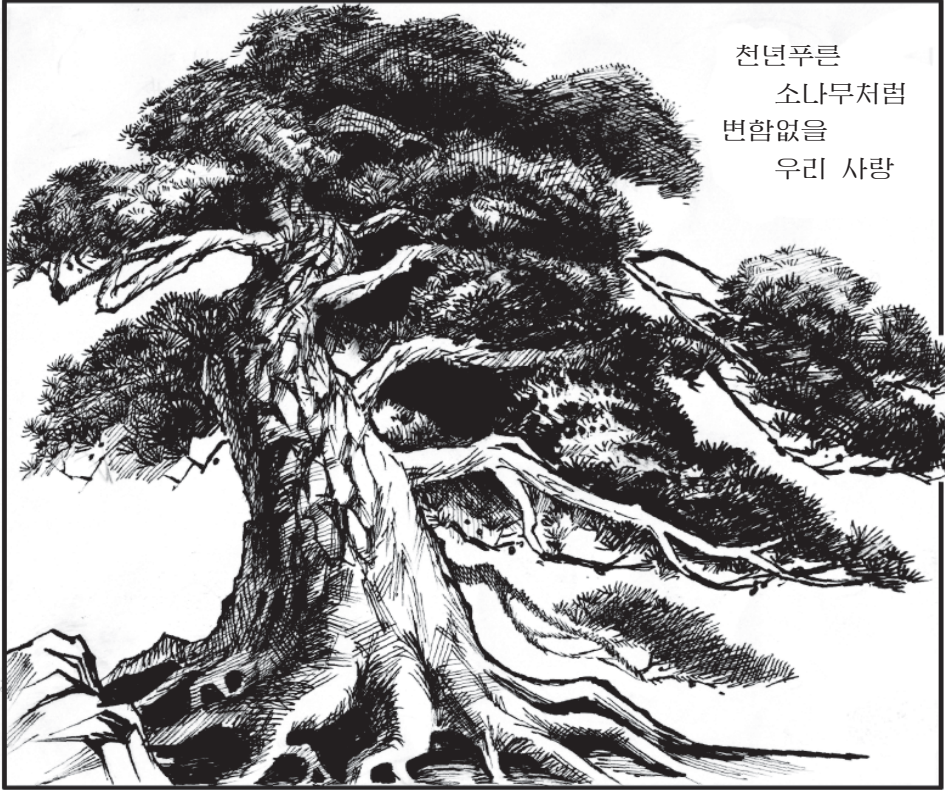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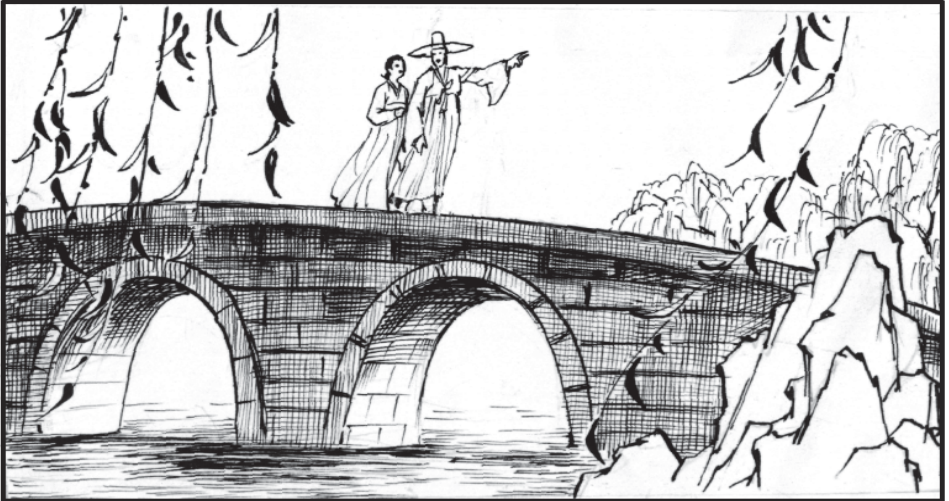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다니…

원한과 설음의 눈물만 흘리던 춘향의 눈에선 기다리고기다리던 도령을 만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흘렀다.

자, 어머니, 보시우다.

어서 보세. 어디 보세. 내 사위가 어사라니 그 모습을 어디 보세나.

이제 보니 거지 사위가 분명하구나. 이게 꿈이요, 생시요.

경사로다 경사로다
춘향같은 딸을 낳아
어사장모 되였구나
고생끝에 락이로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금강산 상상봉에
구름같이 높은 사랑

푸른물결 천리만리
동해같이 깊은 사랑

천년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을
우리 사랑

빈부귀천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봉건의 온갖 유혹과 위선을 불사르며 옥갈이 빛나고 샘처럼 맑고맑은 사랑을 꽃피운 춘향을 사람들은 남원의 렬녀로 부르며 전해오고있다.